금융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11.21.(금) 조간 배포 2025.11.20.(목) 09:00

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, 금융안정위원회(FSB) 총회 참석

- FSB는 '26년 **규제·감독 현대화, 스테이블코인, NBFI** 등 중점 논의 전망 -

1. 회의개요

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11월 18일(화)~19일(수)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**금융안정위원회 총회**(FSB plenary) 및 **EMDEs**(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) **포럼**에 참석하였다.

이번 회의에서는 ①**금융안전성 전망**, ②**스테이블코인 현황**, ③**규제·감독 현대화**, ④**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**, ⑤**비은행금융중개**(NBFI; Non-Bank Financial Intermediation), ⑥**국경간 결제**, ⑦**보험 분야**, ⑧**FSB 2026년 업무계획** 등이 논의되었다.

【 금융안정위원회(Financial Stability Board) 개요 】

◇ **(연혁)**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**금융안정포럼(FSF)**을 **전신**으로 하며, 글로벌 금융위기('08) 극복 과정에서 **G20**이 참여하는 **금융안정위원회(FSB)**로 확대·개편

◇ **(기능)**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,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**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**을 위한 **금융규제 개혁** 추진

◇ **(구성)** G20 회원국의 재무부·감독당국·중앙은행 등(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)

2. 의제별 주요 논의내용

1 금융안정성 전망

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**시장 변동성 확대**는 **대체로 안정화**되었으나, 여전히 **경제전망**의 **불확실성**과 **잠재된 취약성**이 **존재**한다고 평가했다. 주요 취약점으로 ①**자산가격**의 **과도한 상승**, ②**높은 수준**의 **국가부채**, ③사이버공격 등에 따른 **운영 리스크**, ④**스테이블코인**과 **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** 등을 지적하며 **지속적인 모니터링**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fsc1140 /2025-11-21 10:5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2 스테이블코인 현황

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**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**, **주요 취약점** 등을 논의·공유하였다.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**제도화 노력**을 **공유**하고 **여러 국가**에서 **스테이블코인**을 **발행**하는 **사업자**에서 기인할 수 있는 **취약점**을 **주시**할 필요성에 공감했다.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**스테이블코인 역할**이 **확대**되고 있다며 이를 **핵심분야**로 강조하고, '26년은 **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**, **국가간 정보 공유·감독 논의**, **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**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 밝혔다.

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"**스테이블코인**의 **국경간 거래, 온·오프라인 결제** 등 **활용**이 **확산**되고 있어 **외환부문, 자금세탁 위험** 등과 관련하여 **우려**가 제기되며, **금융안정 측면**에서 **면밀한 모니터링**이 필요하다"고 언급하고, "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**국가간 제도 차이**로 인한 **'규제차익' 방지**를 위해서는 **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**과 **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**이 필요하다"고 강조하였다.

3 규제 · 감독 현대화 (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)

FSB는 **변화하는 금융 환경**을 반영하고 **금융 안정**과 **경제 성장 간 적절한 균형**을 이루기 위하여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**규제·감독 체계**의 **점검 필요성**을 인식하고 **신규 중점 의제**로 제안하였다.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, **새로운 현실**을 **반영**하여 **기존 규제**를 **개정**하고 **간소화**하며 **폐지·대체** 등을 하는 **규제·감독 현대화**의 필요성에 **적극 공감**하며, **FSB**가 회원국의 규제·감독 현대화 노력을 주도하는 **플랫폼 역할 수행**할 수 있다고 보았다. FSB는 **회원국별 현황 점검**, **권고안 개발**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여 '26년에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.

안 위원은 "**규제·감독 현대화**에 대한 **필요성**에 **공감**하며,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**정책 효과성**과 **규제 대상의 부담**을 **비교**하는 등의 **균형잡힌 시각**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 이와 더불어, "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**'생산적 금융' 차원**에서 **규제·감독 현대화 논의**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"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.

fsc1140 /2025-11-21 10:5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4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

FSB는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**위기상황 대비**(crisis preparedness)를 위해 필요한 **포괄적 정리체계**(resolution framework)를 개발·채택하여 왔으나, **'23년 은행권 부실사태**(banking turmoil) 당시 그 **효과성**에 **한계**를 보임에 따라 **전략적**으로 **검토**할 것을 제안하였다. 회원국들은 정리제도는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**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체계**를 형성해 가는 **취지**에 **공감**하며 **동 제안**을 **적극 지지**하였다. FSB 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**고위급 실무그룹**을 **구성·운영**할 것이라 밝혔다.

5 비은행금융중개(NBFI)

FSB는 **비은행금융중개(NBFI)**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**파급효과**(spillover effect)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**회복력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**권고안 개발** 등을 추진해 왔다. 이번 회의에서 **NBFI 권고안***에 대한 **후속작업** 여부와 **NDTF**(Nonbank Data Task Force)의 **작업방향**을 논의하였다. 회원국들은 NBFI 분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**후속작업**에 대하여 **지지**를 표명하였다. FSB 의장은 **NDTF**에서 **국채시장**의 **레버리지 거래전략**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, NBFI 후속작업시 **민간 부문**과 **협업**을 **확대**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.

* NBFI 레버리지('25.7월), 개방형펀드 유동성 불일치에 따른 취약성 해결을 위한 권고안('23.12월) 등

안 위원은 "**헤지펀드, 사모신용**(private credit) 등 **비은행금융중개** 부문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**리스크**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**NBFI 후속작업**을 논의하는 것은 **시의적절**하고 **상당한 의미**가 있다고 하며,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**유연**하고 **비례적인 접근**이 필요하다"고 제안하였다.

6 국경 간 결제

FSB는 「**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**」* 하 최우선 과제를 상당 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, **목표 달성**을 위해 **추가 노력**이 **필요한 상황**을 공유하였다. 회원국들은 설정한 목표를 **'27년까지 달성이 어렵다**는 인식을 나누었으나,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**'26년에는 로드맵 권고안**에 대한 **이행 촉진**에 **집중**하기로 하였다.

* 3개 섹터(Wholesale(금융기관간), ❷Retail(P2P, SMEs, 소상공인 등), ❸Remittances(가족·친구간 송금 등)), 4개 과제(❶비용(Cost), ❷속도(Speed), ❸접근성(Access), ❹투명성(Transparency))를 추진

fsc1140 /2025-11-21 10:5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7 보험 분야

FSB는 **보험분야 시스템 리스크**를 **평가**하는 **도구**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(G-SIIs;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)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'19년에 채택한 **IAIS 종합적 프레임워크**(Holistic Framework)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하였다. 회원국들은 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**종합적 프레임워크**에 기반한 평가를 지속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, **정리제도 핵심준칙***을 적용하는 **보험사 리스트**를 **공표**하고 **모니터링**하는 것에 대해서도 **지지**하였다.

*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(SIFIs;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(당국과 협력 협약, 정리가능성 평가, 정상화·정리계획 등)

8 FSB 업무계획

마지막으로 FSB는 **2026년 업무계획**에 대해서 논의하였다. FSB는 ①**취약성 평가**, ②**비은행금융중개**, ③**디지털 혁신·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**(Operational resilience), ④**규제·감독 이니셔티브**, ⑤**국경간 결제**, ⑥**위기상황 대비 및 정리**, ⑦**이행 모니터링 평가** 등을 **우선순위**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. 회원국들은 FSB 2026년 업무계획, 특히 **규제·감독 현대화, 스테이블코인, NBFI**의 **리스크** 등을 **중요한 주제**로 **선정**한 것에 동의하고 FSB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.

3. 평가 및 향후계획

회원국들은 **스테이블코인**의 부상을 주목하고, 레버리지를 활용한 **비은행금융중개**(NBFI)의 확장을 우려하며 **모니터링**과 **국제적 공조**를 강조하였다. 한편, **'26년 G20 의장국**인 **미국**의 **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**을 고려할 때, 신규 의제인 **규제·감독 현대화**는 **내년 FSB에서 중요**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융위원회는 **금융안정위원회**(FSB) 등 **국제논의 동향**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**정합성**을 **제고**해 나가고, 필요시 회의에서 **한국 입장**을 **적극 반영**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윤희 (02-2100-2880)
		담당자	사무관 임두봉 (02-2100-2893)

fsc1140 /2025-11-21 10:5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